

100kWh 더 사용한 2구간 가구 8만8190원→6만5680원

7~8월 누진제 완화...전기요금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라 광주·전남지역민들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kW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한다.

광주·전남 지역의 혜택 가구수는 이르면 오는 9일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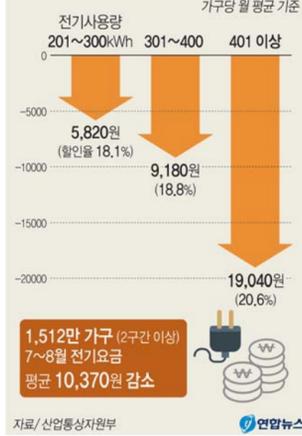
할인액은 사용량에 따라 다르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

누진제 2구간 가구 혜택 집중

1512만가구 19.5%씩 감면

취약계층 할인도 30% 확대

7~8월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효과



진제 완화로 2만2510원(25.5%) 감소한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1~400kWh 9180원(18.8%), 401kWh 초과 1만9040원(20.6%) 등이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kW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kWh까지 상승하다가 5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4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6367원으로 2만7773원(26.7%) 감소한다.

700kWh를 사용하면 16만7950원에서 14만6659원으로 2만1291원(12.7%) 감소한다.

산업부는 이미 일부 가정에 7월 청구서가 발송된 점을 고려해 7월 인하분을 8월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 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을 고려해 342만 가구에 대한 228억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7~8월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8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30% 확대하고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의 할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고시원과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저소득층과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사회복지시설 등의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남뉴스



백은규(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남뉴스

김영록 지사 “한전공대 설립 해법은 특별법 제정”

실국장 회의 준비 주문 “입지는 타당성이 가장 중요”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한전공대 설립 해법은 특별법 제정”이라며 “정부와 시도,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한전공대에 대해 사·도민들이 큰 관심을 두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은규 산업자원부 장관이 휴가차 전남을 방문했을 때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부탁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 구성과 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부 공무원들에게는 지역 국회의원과 연대해 빠르게 특별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전공대 부지와 관련, 김 지사는 “부지 문제에 대해 사·도간 확장성이 있는 부지 제공 가능성을 평가해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보도됐는데 지자체나 주민과의 협조 문제는 전남도가 적극 나서서 한전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다고



김영록(왼쪽 두번째) 전남지사가 7일 오전 도청 서재발심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용역은 타당성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도의 기여도 평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사·도가 제시한 조건을 저울질하기보다 객관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한 부지 평가를 한전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민 전선을 위해 총력을 펼치는 형국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날 광주시청을

방문한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을 만나 “한전공대 설립은 문제인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공약대로 2022년 3월 개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최근 불거진 2025년 이후 개교설에 대해서는 “개교 목표를 예정대로 2022년 3월로 잡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 단장은 사·도의 협조, 정부 차원의 지원, 특별법 등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해 특별법 제정이나 협의체 구성 등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자동차 운행 제한한다

국무회의 ‘미세먼지 특별법’ 의결

내년 2월부터 사·도지사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할 수 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신장현·강병원 의원의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라 사·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데다 비상저감조치는 1년 중 며칠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답했다.

환경부 장관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은 사·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설치된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하려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돼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사·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연남뉴스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러시아, 세부, 북해도, 다낭, 방콕, 대만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늘거든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 [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기타큐슈 아마구치 3일 [폭격] 549,000원~ ※ 불포항사항: 무안공항 승수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949,000원~

무안 ↔ 토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 추석 연휴 스케줄(9/22, 23, 24, 25~)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휴일 연휴, 가족, 연인, 함께... 무안 ↔ 마쓰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쓰모토 관광

9월 23일 부터(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2박3일 1,048,000원~ • 3박4일 1,198,000원~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항!!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폭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폭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국경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를 전세기 취항!! 7/11부터 ~ 8/16까지 총 10회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폭격] 5성급 1,350,000원~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출발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팬퍼시픽항공 왕복항공권 - 음료 서비스 / 기내 담요 서비스 • 일급 / 준특급 / 특급 리프트 3박(2인실 기준), 1억원 여행저보증
• 특식 2회, 리프트식 3회, 코코넛 오일(오리 드라이프) & 코코넛 비누 1SET(제공) • 필리핀 현지 공항세(700페소/1인당) 포함
• 체일디(1명 무료) 리무진 디스커버리 투어, 민속공연 관람, 마사지
• 시내관광(아일랜드) 십자가, 산페드로요새 또는 마탄성당, 마탄수라인 등
• \$80 상당의 아일랜드 호텔투어(세부도 중식) 포함 ※ 출발 날짜별로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니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7월 27일 부터(일, 월 출발)

- 대만, 화롄, 지우펀, 아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대만, 서문정, 지우펀, 아류 2박3일 629,000원~

광주 ↔ 제주도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푸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배개, 비디오 상영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5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969,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남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휴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기간별 기내(여행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회(기금), 관광 및 무주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기간별 기금 결제 ◆ 예약시 계약서(약관)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등록, 기사/가이드 명세서, 선택관광, 각종 비자(방문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